

꽃축제·생태예술제 다채

경남 하늘은 높고 맑은 살찐다는 이 계절, 경남의 내로라하는 관광지들 중심으로 다양한 꽃축제와 생태예술제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하나같이 경남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및 예술제들이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주변 여행도 즐기는 다목적 가을나들이에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어지러운 세상에도 너는 피었구나



제10회 거제섬꽃축제 행사장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국화 조형물.

〈거제시 제공〉

거제섬꽃축제 내일부터
국화잔치·힐링허브랜드
1만 송이 해바라기 미로원
청소년 락페스티벌 등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영 대지예술 거장 작품전
인간문화재 무용·뮤지컬
생태예술제 수상작 전시

남해 바래길 가을소풍
남면 흥현숲 통기타로 시작
속호숲·미국마을 등 8km
먹거리 장터·작은 음악회

생태관광여행 in우포산
자연미술 설치·아트 워크숍
책 듣는 우포, 감성쑥쑥
햇살 장터·우포 거닐기 등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크리스 두트 리 작 '지리산 티 라인' 〈하동군 제공〉

◇거제 가을꽃의 향연
제11회 거제섬꽃축제가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9일간 '꽃 향기 따라 떠나는 섬 나들이'를 주제로 거제시 거제면 농업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번 거제섬꽃축제는 농업개발원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행사장 11ha에 1억 송이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가을꽃으로 채워진다. 잔디광장에는 대형 유람선, 거제면기성관, 돌고래, 돛새치 무리, 문어 등 조선해양관광도시 거제를 상징하는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전시된다.

특히 지난해 조성된 '힐링허브랜드'는 30여종의 다양한 허브와 초화류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농심테마파크'는 깨달기, 감따기 등 20여종의 토끼어리, 50여종의 국화 및 초화류로 꾸며진다.

거제도에 자생하는 야생화인 해국과 쑥부쟁이, 갯국, 털머위, 구절초 꽃을 볼 수 있는 거제섬꽃동산과 1만 송이가 핀 해바라기 미로원은 차별화된 꽃의 향연으로 관람객을 유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예술전시장은 1년 동안 노력해 온 국화연구회 회원들의 분재작품이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게 연출돼 있고, 감소농(작지만 강한 농업) 회원들은 우리의 농업을 알리는 농업기술 홍보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거제의 사진작가들이 거제를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20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하고, 100여 점의 한국화도 나들이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거제섬꽃축제는 꽃 전시 못지않게 다양한 공연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축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댄스, 국악, 마술 등 거제지역 공연단체의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K전통민속 예술축제, 청소년 락페스티벌 등이 함께 펼쳐진다. 어린이들을 위한 곤충생태체험관과 고무마 수확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하동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대지예술(Land Art) 거장 크리스 두트리의 작품과 유인촌의 뮤지컬, 인간문화재의 무용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 페스티벌이 하동에서 열린다.

하동군은 28일 오후 2시 적량면 삼화에코하우스와 지리산생태아트파크 일원에서 '다시 자연으로(Back to the Nature)'를 테마로 '2016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를 개최한다.



남해바래길 가을소풍에 행사 참가자들이 흥현 숲길을 걷고 있는 모습.

〈남해군 제공〉

예술제는 지리산에 세계적인 생태예술 작품을 설치하고 지리산의 생태환경과 예술작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조직위원회(위원장 유인촌)가 주최하고 예술제집행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린다.

예술제 개막은 28일 오후 3시이지만, 이에 앞서 오후 2시 지리산생태아트파크에서 크리스 두트리의 대지예술 작품 제막식이 열린다.

이번 예술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크리스 두트리는 지난 7월 작품구상 차 하동을 찾아 지리산 일원을 둘러본 뒤 최근 다시 방문에 설치작업을 했다. 작품은 하동을 상징하는 차나무·바위 등을 소재로 자연과 문화, 내적영역과 외적영역, 소우주와 대우주 같은 세계의 다양하고 상이한 현상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표현한 '지리산 티 라인(Jirisan Tea Line)'이다.

이어 에코하우스에서 식전 공연으로 '그린나래'(단장 한숙자)의 고전무용 '단향무(端香舞)'가 펼쳐지고 개막식 후에는 인간문화재 하용부의 장자무 '영무'와 배우이자 경희대 연극영화과 교수 이영란의 '살풀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메인 공연으로 유인촌 위원장이 연출한 '이룰 수 없는 꿈' 등 뮤지컬 3편을 보여주는 '베스트 콘서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짓과 소리, 기를 표현한 '살아 움직이는 예술공연'이 연이어 펼쳐진다. 예술제에는 김성수·류은자·김곤·이명희·정운상·최준영 등 초대작가의 설치작품 6점과 환경생태예술제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도 마련된다.

◇남해 바래길 가을소풍 행사
제6회 남해바래길 가을소풍 행사가 29일 바래길 제2코스의 영강다숲길에서 열린다.

남해군이 주최하고 남해바래길 사람들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프로스펙스가 기념품을 제공한다.

남면 흥현숲에서 오전 10시 통기타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가을소풍 행사는 남면 속호숲과 두곡·월포해수욕장, 미국 마을, 이동면 화계해안도로, 영강다숲의 바래길 탐방안내센터로 이어지는 8km 구간에서 열린다.

부대행사로 먹거리 장터와 작은 음악회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는 전국의 걷기 동호인, 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남해바래길 홈페이지(www.baraeroad.or.kr)나 전화(☎ 055-863-8778)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000원이며, 참가자에게는 먹거리장터 이용권이 제공된다. 점심 도시락과 간식은 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며 행사 당일 접수처에 참가비를 납부하고 배변과 기념품을 받으면 된다.

참가방법 등 기타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055-860-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 바래길은 선조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해산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 이용하던 길로,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에 선정돼 10개 코스 총 130km가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

◇창녕 우포늪 '생태관광여행 in우포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관광지 창녕 우포늪에서 '생태관광여행 in우포산' 행사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린다.

'in우포산'은 환경부가 지원하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의 하나로, 창녕군이 주최하고 (사)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가 주관해 우포늪과 우포늪생태체험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우포늪 인근 주민이 주축이 돼 우포늪생태관광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자연미술 설치, 아트 워크숍, 더 우포전, 책 듣는 우포, 감성쑥쑥! 생태체험교육, 우포 햇살 장터 등이 진행되고, 우포늪에서는 '생명의 늪 우포를 거닐다', 'Silence! 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생태관광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가을빛으로 물들여가는 아름다운 우포늪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사)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 055-532-1141)·창녕군청 생태관광과(☎ 055-530-1523)로 하면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이준희 경남신문 기자 jhlee@knnews.co.kr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김성훈한의원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횡다리교정 체형교정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

심의를 160315-증-30749

Yellow ID TALK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 하세요.

턱관절 안면비대칭
 횡다리 체형 교정